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 강의 진행 등 어려운 상태 판단"

조국 "재판 대응하면서 강단 다시 설 날 준비"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직위해제가 되면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다. 앞으로 3개월간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장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로스쿨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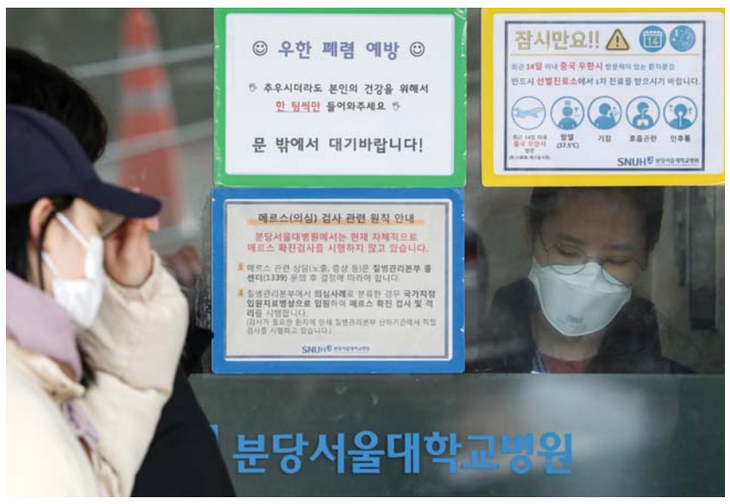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가 직위해제를 발표한 직후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는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에도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학 끝나고 졸업 시즌 다가오는데…우한폐렴 대응 '비상'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네 명에 머물러 있는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 질병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확진환자 늘면서 학생·학부모 우려 목소리 커져

청원도 등장…교육부 "개학 연기는 신중히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학교와 유치원들의 겨울방학이 끝나고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대책회의를 하며 학교 내 확산 방지에 애쓰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 국내에서 네 번째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직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다니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각급 학교와 유치원들이 개학을 하고 앞으로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서 더욱 우한폐렴에 대한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7일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내 시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개학 시기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청원은 하루 만에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79개 초등학교가 이날 개학을 했다. 앞서 19개의 서울시 초등학교가 이미 개학을 했다. 29일에는 146개, 30일에는 265개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등 3월 2일까지 총 504개 초등학교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다.

중학교는 28일 23개교가 개학하면서 앞서 개학한 3개교까지 더해 총 26개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9일 30개교를 시작으로 31일(24개교), 2월 3일(150개교), 2월 4일(21일개교) 등이 개학한다.

고등학교는 28일 8개교를 시작으로 개학한다. 고등학교 역시 1월 29일(21개교)부터 30일(23개교), 31일(19개교)가 차례로 개학한 뒤 다음달 3일에는 총 134개교가 개학하는 등 수업을 한다.

서울시 내 유치원은 총 812개 중 70.6%에 해당하는 573개가 이미 개학을 했다. 28일에도 32개가 개학을 했고, 29일부터 2월 4일까지 206개 유치원이 개학을 할 예정이다.

학교와 유치원들은 개학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졸업식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만큼 감염 우려가 클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2개 중 29개만 졸업식을 했고 573개가 졸업식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졸업식이 2월 10일 이후인 만큼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중학교는 390개 중 83개교가, 고등학교는 320개교 중 29개교가 졸업식을 진행했다. 300여개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졸업식을 앞둔 상황이다.

면역체계가 가장 약한 유치원은 아직까지 단 한 유치원도 졸업식을 하지 않았다. 유치원은 오는 31일 2개를 시작으로 2월에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월 말인 19일(120개), 20일(144개), 21일(147개)에 많은 유치원들의 졸업식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학교 행사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오전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내 졸업식 등 단체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할 때는 소규모 행사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대책 회의를 열어 개학하는 학교별로 개인위생, 의심증상 신고요령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교직원 병문안 자제 등 보건 생활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교육하기로 했다. 또한 졸업식 등 행사는 학급에서 영상으로 진행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개학 연기는 교장단과 회의, 법적인 검토를 거쳐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계 비정규직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전태일 50주기, 문재인 대통령 10대 거짓말·50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짓말과 50대 요구안을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공약 어디로" 노동단체 '文대통령 10대 거짓말' 규탄

노동사회단체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내달 8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체) 관계자 50여명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계단에 모여 팻말을 들고 현정권에게 노동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들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거짓말을 했다"며 △노동자의 안전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임금체불 국가 책임 △임금감소 없이 주 52시간 엄수 △노동기본권 보장 △청년일자리 보장 등의 약속을 제시했다. 모두 문 대통령이 공약 혹은 SNS에 올렸던 발언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김용균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단체는 고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수은과 납, 카드뮴 관련 작업을 제외한 작업에서는 여전히 도급금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논의되지 않아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이후 지난 10월30일까지도 523명이 일터에서 사망해 위험의 외주화는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점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자회사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조성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실은 톨게이트 직원 1500명이 해고당했고 가스공사 비정규직 지부도 (고용조건 등을 이유로)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52시간 노동도 일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섬세한 대책을 요구했다. 안병호 영화산업 노동자는 "영화산업은 이제서야 노동시간 52시간이 맞춰지고 있는데 탄력근무제 기간이 확대되어 오히려 장기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짚었다.

이들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며 노조할 권리 등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은 청계천 평화시장 인근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가 22살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해 사망한지 50년이 되는 해다.